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유튜브 캡처. 영국 O2 아레나 공연 때문에 시상식에 불참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달했다.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또 '한국 최초' 달성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이 한국 그룹 최초로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공연장에서 열린 '2018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부문에는 카디 비, 아리아나 그란데, 데미 로바토, 션 멘데스 등 경쟁한 아티스트들이 후보로 올랐으나 방탄소년단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영국 O2 아레나 공연 때문에 이날 시상식에 불참한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소감을 전했다. 멤버들은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현재 북미 투어를 마치고 유럽 투어를 위해 런던에 있어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팬클럽 아미 여러분께 고맙다"며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주시고 특별한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아메리칸 뮤직어워즈는 빌보드 뮤직어워즈, 그래미 뮤직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올해 시상식에선 여풍이 거셌다. 테일러 스위프트, 카디 비, 카밀라 카베요 등 여성 아티스트들이 주요 상을 휩쓸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올해의 투어', '페이보릿 팝/록 여성 아티스트' 상을 받았으며 신보 '레putation' (REPUTATION)으로 '최고의 앨범'에 선정돼 4관왕에 올랐다.

카밀라 카베요는 세계를 라틴 열풍에 빠트린 곡 '하바나' (HAVANA)로 신인상과 '페이보릿 뮤직비디오', '페이보릿 팝·록' 상까지 3개 트로피를 차지했다. 카디 비는 '페이보릿 아티스트 랩·힙합' 상을 받고 그의 노래 '보다엘로' (BODAK YELLOW)로 '페이보릿 송·랩·힙합' 상을 받았다. 또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파인니스' (FINESSE)로 '페이보릿 송·솔·R&B' 상을 받아 3관왕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폭행유산' 김현중, 2심도 승소

재판부 "전 여자친구 근거 없는 주장"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의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명)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선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8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들을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모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샘 스미스, 첫 내한 공연 성료

두 번째 정규앨범 발매 기념 아시아 투어

"사랑합니다, 서울. 곧 돌아올게요!"

영국 뮤지션 샘 스미스(26)가 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내한 공연을 열어 서울의 가을밤을 뜨겁게 달궜다.

샘 스미스는 2014년 데뷔 앨범 '인더솔리타리' (In The Lonely Hour)로 대중과 평론가들 주목을 한몸에 받으며 세계적인 팝스타로 도약했다. 이후 2015년 그래미 어워즈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최우수 신인 등 4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날 공연은 샘 스미스의 두 번째 정규앨범 '더 스릴 오브 잇 올' (The Thrill of it all) 발매 기념 아시아 투어 일환이다.

스미스는 이날 오후 7시 10분께 '서울'을 외치며 무대에 등장했다. 첫 곡인 '원 라스트 송' (One Last Song)을 부르며 미소를 지은 채 연신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오늘 내 꿈이 이뤄졌다. 한국에 오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며 "내 음악이 가끔은 우울하고 슬프지만, 오늘 밤은 당신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첫 내한의 한을 풀듯 '원 라스트 송' (One Last Song), '아임낫더올리원' (I'm Not the Only One), '레이미다운' (Lay Me Down), 디스크 로저와 함께 한 '오멘' (Omen), '라이팅스 온 더 월' (Writings on the Wall), '라이크 아이 캔' (Like I Can), 켈빈 해리스와 함께한 '프로미시스' (Promises), '투 굿 댓 굿바이즈' (Too Good at Goodbyes) 등 22곡을 열창했다.

스미스는 감정을 풍부하게 담은 애절한 목소리로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Lay Me Down'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쓴 곡 중 하나인데, 아직도 이 노래



를 부르는 것이 너무 좋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내내 "오늘 부르는 노래를 전부 따라 불러달라"고 요청하며 관객 반응을 유도하는 등 계속 함께 호흡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2만여명의 관객은 '폐창'으로 이에 화답했다.

이날 공연에서 스미스는 서울에 대한 사랑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는 "이들 동안 서울을 돌아다녔는데 이곳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며 "오늘이 콘서트는 후일 있을 수많은 콘서트 중 첫 번째다.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수지 "저 결혼해요"

일반인 남자친구와 화촉

개그맨 이수지(33)가 일반인 남자친구와 결혼한다.

이수지는 10일 자신이 진행하는 '이수지의 가요광장' 오프닝에서 "저 결혼합니다"고 밝혔다.

그는 "친한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받고 싶고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이 청첩장이다. '가요광장'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앞서 이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 이수지가 품절되었음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짝꿍과 평생을 함께해보려 합니다. 좀 더 많은 분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라디오를 통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



백성현, 음주운전 차량 동승 인정

군 복무 휴가 중 물의 "죄송스럽다"

의경 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스포츠경향은 백성현이 탑승한 음주운전 차량이 이날 오전 제1자유로에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백성현 소속사 싸이더스 HQ는 10일 입장을 내고 "백성현이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러면서 "군 복무 중인 백



성현이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이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외화 블록버스터 개봉한다

'신비한 동물'·'아쿠아맨'·'마법시계' 등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는 마블 영화 '베놈'에 이어 외화 블록버스터들이 차례로 관객을 찾아온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를 오는 11월 14일 개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작 '신비한 동물사전'에 이어 데이비드 예이츠가 연출을, 해리포터 시리즈의 J.K.롤링이 각본을 맡은 작품으로, 뉴욕을 배경으로 전 세계 미래가 걸린 마법 대결을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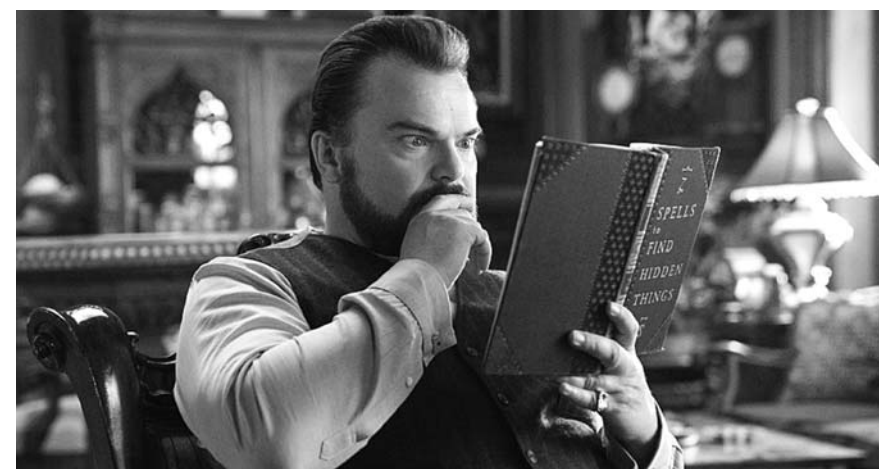
이 작품은 한국배우 수현이 출연해 화제와 함께 논란이 됐다. 수현이 맡은 역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한 악의 화신 볼드모트의 애완범 '내기니'. 수현은 피의 저주를 받아 뱀으로 변하는

여성 서커스 단원으로 설정됐다.

지난달 25일 홍보영상을 통해 수현의 배역이 공개되자, 내기니가 실은 사람이었다는 것과 아시아계 여배우를 애완범으로 설정한 데 대한 비판이 일었다. 내기니는 볼드모트의 소유물로, 볼드모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면서도 순종적인 캐릭터다. 이에 따라 영화 속에서 수현이 어떤 캐릭터로 그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히어로 무비 '아쿠아맨'은 12월 관객을 맞는다. '아쿠아맨'은 육지와 바다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히어로다.

이 작품은 아틀란스의 전설적인 왕 아틀란의 삼자장을 찾아 아쿠아맨과 메



오는 31일 개봉하는 '벽 속에 숨은 마법시계'

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펼치는 모험을 그렸다.

제이슨 모모야가 아쿠아맨을, 엠버 허드가 아쿠아맨과 동등한 위력을 지닌 메라 역을 맡았다.

'쑤우', '컨저링' 시리즈로 할리우드의 '호러 아이콘'으로 통하는 제임스 완 감독이 연출한 최초의 히어로 무비여서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책 블랙과 케이트 블란쳇이 출연하는 '벽 속에 숨은 마법시계'는 이달 31일 개봉한다. 행동파 마법사 조나단(잭 블랙)과 엘리트 마법사 플로렌스(케이트 블란쳇)이 세상의 운명이 걸린 마법 시계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다.

'주라기 월드' '레디 플레이어 원' 등을 만든 엠블린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했다. /연합뉴스

엑소 첸, 멤버 도경수 지원사격...OST 참여

엑소 첸이 같은 그룹 멤버 도경수(도경수 분)가 주연으로 출연 중인 tvN 월화극 '백일의 낭군님' OST(오리지널사운드트랙)에 참여한다.

드라마 측은 지난 8일 방송 중 원득

(도경수 분)과 홍심(남지현)의 키스신에서 먼저 등장해 화제를 모은 곡을 첸이 부른다고 10일 밝혔다.

첸이 부른 '백일의 낭군님' 삽입곡은 오는 16일에 공개된다. /연합뉴스